

2015.07.07.

연세대학교 제26대 총학생회 <다시 봄>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 세미나 2회차

세미나를 열며

생활 나누기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돌아가며 30초, 1분씩 생활 나누기 해봐요!

로파리.

세. 다. 페. 공동체 자치 규약

OT에서 함께 만든 공동체 자치 규약,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 다양성 인정하고 존중하기
 - 다양한 성 고려하기
 - 외모를 존중하기
 - 상대방에 대해 가정하지 않기 (예: 이성애자일 것이라 가정)
 - 장애인지 감수성 갖기
- 서로 관심 갖고 알아가기
 - 누군가 소외되지 않게끔 관심 가져주기
- 시간 약속 잘 지키기
 - 늦거나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기 (적어도 전날까지)
- 술 강권하지 않기
-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기
 - 섭섭한 것이 있으면 먼저 둘의 진솔한 대화로
 - 불편한 것이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예: X선비, 젠더충, 진지충, 꿀페미라고 비난하지 않기)
- 서로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일 분배하기
- 비밀 유지
 - 세미나에서 나온 서로의 내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기
- 상대방 말 끝나고 발언하기
- 합의 하에 상호존대/상호반말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약속 몇 가지

하나. 발제문, 심화 리딩 등을 읽거나 토론을 하다 보면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개념 어들이 종종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보아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한 쉽게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요. 누군가가 한 답변에서 부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둘. 우리가 읽고 토론할 글들은 결국에는 누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을 드러내는, 하나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글을 읽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이론가의 글이라도 정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세미나 자리에 들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그러면 세미나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거고, 서로의 지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셋.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세미나의 주제와 이어지는 흥미로운 텍스트, 그림, 음악, 영화, 웹툰, 뭐든지 등등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북을 받으실 거예요. 혹시 정말 이 얘기는 꼭 나누고 싶거나, 발제를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기획단에게 미리 연결을 주시고 발제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 문장, 이야기 한 토막이라도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이 꼭 나누어 보아요.

넷. 세미나가 서로의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요. 세미나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외부에서 함부로 소비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요.

다섯. 가장 중요한 부분. 혹시 세미나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면, 절대 혼자서 삭이지 말고 세미나 기획단, 혹은 세미나 자리에서 모두와 함께 꼭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결국, 이 세미나도 모두가 잘 좀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세미나로 누군가가 소모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누군가 지치거나, 소모되거나, 불편해지는 세미나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요.

영리 계절 월타수목요. 좋아하는 생과 죽은 내로 많이.

정규 머리 스테이플러.

찬래 자바로 3시간 20p. 주말 여행.

해인 연구 도라드라고 진행 중. 서독이 없어서 밤을 안어.

인영 인턴, 학리. (서로 생김)

구태타마. 카카오톡, 이모티콘.

김태원 전로 우물...

민정. 방문. 주4회 생로 등.

전호. 금자 1주 4회.

상희. 이프. 만리재 2회.

호정.

지금 여기의 여성혐오, 그리고 총여학생회

발제: 혜운/esse

※ 발제문에서 계속 사용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표현은, 젠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¹⁾

수년간 침체를 겪던 대학 내 여성주의 모임들이 별안간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무려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인데도.) 다른 대학의 여성주의 단위에도 세미나나 기획단에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 계속될지, 일시적 유행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돌이켜보면 지금 여성주의가 이슈가 된 데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²⁾이 발생한 이후에 IS³⁾로 넘어간 김군이 "남성이 억차별 받는 시대가 됐다", "페미니스트를 증오해서 IS가 좋다"("However, the current era is the era that male a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nd I hate feminist So I like the isis")라고 SNS에 글을 써놓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칼럼니스트 김태훈의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라는 칼럼 이후에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선언이 유행을 타게 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자보가 대학에 팔려있다면,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별안간 후원이 늘어나거나 증액을 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해시태그 이후를 몰색하던 사람들이 모여 작은 모임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무한도전의 새로운 멤버(6th man)의 후보로 올라온 개그맨 장동민이 예전에 '웅달샘의 꿈꾸는 라디오'라는 팟캐스트에서 여성혐오적 발언⁴⁾을 한 게 문제가 되었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가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자, 디씨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의 '메르스 갤러리'는 메르스를 여성이 국내로 가져왔으며 여성혐오적 발언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여성들은 메르스 갤러리를 점령하고 자신들을 '메갈리안'⁵⁾이라 스스로를 칭하며 일베의 여성혐오 발언들을

미러링⁶⁾해서 보여주다가, 페이스북에서 '메갈리안'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단순히 미러링을 넘어서 다양한 성차별/성폭력의 지표를 보여주며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혐오 발화는 가부장제의 일상이지만 시공간적 맥락과 배경이 있다. 여성 혐오는 공기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화되었을 때만, 우리는 공기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는 여성 혐오 자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다.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빈곤의 여성화는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혹은 재현의 영역에서 성차별보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격차와 가시화되자 일부 남성들은 자신의 계급적 처지를 젠더로 '해결(전가)'하기 시작했다. 그 편이 가장 쉽기 때문이다.⁷⁾

사실 여성혐오가 갑자기 생겨서 주목받게 된 건 아닙니다. 여성혐오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언제나 있어왔고 이제 대중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일베가 생기면서 여성혐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여성혐오나 차별과 편견 등을 유례없이 폭력적인 단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도 없는 듯한 발화들이 일베를 통해 가감 없이 드러나고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베의 안에 있는 사고/표현방식이 남성의 불안이 표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개선된 것들이 존재할 지언정) 예나 지금이나 2등 시민인데 신자유주의 흐름이 세계를 장악하며 남성의 지위가 불안해지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더 약자를 공격하게 된 것이 일베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불안은 어떻게 혐오가 되는가"라는 여성주의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학자 정희진은 민우특강에서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다"며 갑작스럽게 일베 유저들이 불안해서 여성을 공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차별·혐오·공격적 발화에 대한 최소한의 필터링이 있었다면 이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용납된다며, "무지가 어떻게 나뉘어 되었는가"라는 표현이 적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성 혐오 발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일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misogyny. '여성 혐오'라 번역되기도 하고 '여성 혐오증' '여성 혐오감'이라 번역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여성 혐오적인 남자 가운데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여자를 싫어하는 게 '여성 혐오'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많다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다. 그럼 더 알기 쉬운 번역어를 사용해보자. 바로 '여성혐시'다. 여자를 성적 도구로 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알몸이나 미니스커트 같은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만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먹이를 보여주면 조건반사적으로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떠오르는데, 이 메커니즘이 남성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작금의 섹스 산업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⁸⁾

여성 혐오의 개념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된 오해는 여성 혐오가 여자라는 성별을 가진 사람들 전부를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 6) 김치녀-김치남...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으나 생략합니다.
- 7) 정희진, 「언어가 성별을 만든다」,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97쪽.
- 8)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2, 12쪽.

- 1) 물론 '생물학적 성'이라는 sex도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한 이분법이므로 젠더의 산물입니다.
- 2) 샤를리 에브도 테러(프랑스어: Attentat contre Charlie Hebdo)는 2015년 1월 7일 중앙유럽 표준시 11시경 복면을 쓴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테러리스트들은 건물에 들어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자동화기를 난사했으며, 50발 이상의 총격이 가해졌다. 1989년 크리스티앙 도르니에의 총기난사 사건 이후 프랑스 최악의 총기 살해 사건이다. (위키백과)
- 3) 이슬람 국가(아랍어: الدولة الإسلامية, IS)는 이라크 및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무장단체이다. 2014년 6월 현 이름으로 조직명을 변경하며 제정일치의 칼리파 국가 선포를 주장했으며,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아랍어: الدولة الإسلامية في العراق والشام, ISIL),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스스로를 "국가"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극단적인 테러리즘의 성향으로 인하여 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키백과)
- 4) "여자는 멍청해서 남자에게 머리가 안 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건 처녀가 아닌 여자야" 등등. 그 이후 우구라 멤버인 장동민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모 여성 연예인을 빗대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설치고 말하고 떠돌고 생각하고"라고 말했던 게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 5)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남녀관계가 역전된 소설의 전유입니다. 이갈리아는 가모장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 이갈리아에서는 여성이 움(wom), 남성이 맨움(manwom)이 됩니다.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대신 남성이 폐호를 착용하게 됩니다.

총여학생회 겨울방학 세미나에서 일베의 여성 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학우가 일베는 여성 혐오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일베는 특정 여성들, 소위 '개념녀', 즉 '김치녀'가 아닌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성 혐오는 바로 성녀를 숭배하고 창녀를 혐오하는 그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 혐오 담론 하에서 여성은 성녀이든 창녀이든 (남성과) 인간 자격을 가진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도구화·대상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공간에서 성녀와 창녀를 상충하자면 이렇습니다. 더치페이를 하면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군가산점제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며,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배려에 대해서 '같은 여자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여성은 추앙합니다. 하지만 한 과에서 CC를 여러 번 하거나, 외모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성차별이라고 지적하거나, 생리결석계를 쓰거나, 군인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은 손쉽게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오쿠모토는 호색한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수수께끼를 해석하자면, 남자들이 '남성됨'이라는 성적 주체화를 이루기 위해 '여성'이라는 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그들이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성적으로 '남성'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자라는 시시하고 불결하며 이해 불가능한 생물에게 욕망의 충족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남자들의 분노와 원한이 바로 여성 혐오의 내용일 수 있다.¹⁰⁾

사실 평화진이 지적했듯 "여성 혐오는 공기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수히 경험하고 체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성혐오라는 인식을 갖는 게 오히려 비일상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페미니즘을 말한다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언어를 상대화하고 재해석하는 실천'¹¹⁾입니다. 여기서 남성의 언어는 '기존의 주류적 언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세미나에서 계속 이런 상대화·재해석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속해있는 공동체이자 함께 있는 공간인 연세대학교에서 대표적인 여성 혐오의 대상은 총여학생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시대적인 역차별의 지표일지도 모릅니다만. 총여의 앞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놓여있습니다.

- A) 남녀가 반반인데 왜 여학생회가 따로 필요하죠? 남학생인 내 돈이 총여학생회비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없어서 학생회비 안 냅니다.
- B) 페이스북 페이지에 봤는데,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총여학생회'라는 형식이어야 하죠? '성평등위원회'가 되거나, 총학생회 산하의 여성국으로 존재하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 C) 총여의 존재 자체가 역차별로 느껴지고 불편합니다.
- D)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소수자를 위한 것까지 연대를

9)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투사하거나 성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같은 책, 16쪽

11) 같은 책

확장했다면 남성 성소수자나 장애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E) 예전에는 몰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필요 없습니다. 헛돈 쓰는 거죠.

이런 질문들의 일부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일부는 정말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닐 수 있지만, 또 어떤 질문들은 총여가 처한 모순적 상황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총여학생회는 남녀 이분법 구도에 반대하면서도 그 이분법 위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에도 여성은 소수자다'라는 것 이상의 답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가 약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진이 많이 빠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보다,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남학생 투표권'은 사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다수, 즉 여학생-일반을 대의해내지 못하는 총여학생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의 다수/소수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서의 강자/약자를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수만을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 또한 반영하게 하는 것, 즉 "타자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고 봤을 때 총여학생회가 민주주의를 축소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시립대신문/사회] 논란에 휩싸인 총여학생회, 존립할 수 있을까 (2014-11-24)

최근 대학가의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존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총여대는 지난 9월 23일과 24일에 치른 '총여학생회 유·폐지 전체학생총투표 결과'에 따라 총여의 폐지를 결정했다. 중앙대 총여 역시 지난 1학기에 폐지됐고 건국대도 지난해 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총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대학 또한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총여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있어왔다. 이렇듯 대학가에서 총여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탄생한 총여

총여는 1980년대에 여학생을 위한 자치기구로서 출발했다. 초창기 총여는 대학 여학생대표 자회의를 통해 여성단체와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는 등 사회참여적인 성격을 띠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학내 성폭력, 등록금 문제 등 학내 사안을 논의하는 학생기구로 성격이 변했다. 일례로 한 총여에서는 성폭력 신고 창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내 반(反)성폭력, 반(反)성차별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듯 총여는 여성의 인권 신장,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그러나 역차별이 아닌지,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총여의 입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역차별 논란에 장기간 공석되기도

총여의 입지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역차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연세대에서

는 한 남학생이 여학생 휴게실에서 비를 피해 쉬다가 '다른 곳에 가서 쉬라'는 관리 교직원의 말을 듣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해 11월 '남학생 일동'이란 이름으로 왜곡된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논란은 커졌다.

한편 총여가 남학생들의 학생회비까지 여성만을 위한 시설 운영에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여성중심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경희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제기됐다. 경희대에서 총여학생회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 양성평등연대 김동근 대표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제도 내에 '여성'은 이렇게'라는 특정한 항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평등하다'는 가치를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의 평등이다.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주유소 등 '여성'이란 단어를 붙이는 순간 반대편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역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두드러지면서 일부 대학에선 총여의 활동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가 은연중에 존재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여학생들이 점점 많아졌다. 이에 따라 총여가 장기간 공석인 채로 있는 경우 역시 더러 나타났다. 한양대 총여 김소영 회장은 "총여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학생회나 학내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총여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총여는 사실상 원활히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학생들에게 잊혀졌다. 우리대학 역시 지난 2002년부터 입후보자가 없어 사실상 폐지됐다고 볼 수 있으며 건국대 역시 2011년부터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 폐지된 것이다.

논란의 배경과 총여의 필요성을 재고해 봐야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중에서는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등 4곳만이 총여를 독립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경우 총여는 총학 산하 기구로 편입됐거나 학생복지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등으로 대체됐다. 총여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대학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씨는 "총여의 존폐 논란만이 너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총여가 존재해야 하는지 폐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 이전에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지와 같은 더욱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선중(홍익대 14) 씨는 "여성 학우의 복지를 돕는 등 복지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총여는 필요하다. 그러한 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총학의 산하기구로 운영되면 아무래도 활동이 일정 부분 제한돼 총여의 의미가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소영 회장은 "성차별이 겉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총여에 접수된다. 과 생활이나 행사에서도 특정 성별 중심의 문화가 남아있다. 따라서 여전히 총여의 존재가치는 존재한다"며 총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승환 기자 ktaean5445@uos.ac.kr

2015년 7월 현재 서울 시내에 회장단이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총여학생회는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두 곳 뿐입니다. 서울 바깥에 있는 대학에 있는 총여학생회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삼십여개의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어렵듯이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여'를 여자 여(女)가 아니라 같은 여(如), 더불 여(與) 등으로 쓰는 총여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이 좋은 것인지, 생명력이 질긴 것인지,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의 여성혐오와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인지, 총여학생회는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계속 존재해야 한다면 무엇을 존립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세면대 그대르 맨탈원기 >

이
총여의 명예훼손 구체적 강요회.
각각진중서 (각자메일로)

심리적 피해-현재상황-어떤 조치